

안중근의 거사와 가톨릭의 평화론*

김 용 해**

서강대학교

【요약】

가톨릭 신앙인 안중근이 일본왕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사건은 당시 일본과 한국은 물론 동양국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졌다.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안중근은 역사에 살아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가톨릭교회의 평화론을 기준으로 그의 삶과 행동을 조명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기준으로 100년 전의 인물을 평가해 보려는 시도는 그가 시대를 앞서 간 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평화론에서는 전통적인 네 가지 원칙, 인간존엄성,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등의 원리를 살피고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건설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네 가지 내적 태도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태도가 안중근의 사상과 삶과 죽음 속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 조명한다. 이 조명 작업은 그의 자서전과 재판 및 복역과정의 청취서를 참고하면서 그의 양심적 고뇌와 평화와 정의의 지향하는 마음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나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윤리학적 입장에서 그의 거사를 평가한다. “건리사의 건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생명을 내어준다). 그가 남긴 이 글이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의병활동에 투신하였고 마침내 불의에 항거했고 교수형에 처해진 그의 삶을 잘 요약한다.

주제어: 동양평화론, 가톨릭평화론, 인간존엄성, 양심, 실재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53)

** 서강대학교 교수, yhseph@sogang.ac.kr

I. 시작하는 말

1909년 3월 26일 10시 15분, 뤼순 감옥에서 대한국의 한 사람이 고향의 어머니가 갖 보낸 한복수의를 곁에 입고 생의 마지막 길을 떠났다. “나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 일이니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한·일 양국은 동양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잠시 기도를 올리면서 떠났다. 이 사람이 오늘에도 한·중·일 동양 3국의 평화라는 화두가 되어 역사 속에 살아있는 안중근(安重根)이다. 안중근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안중근의 삶과 사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객관적 사실을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진실은 무엇인지도 기늩해야 한다. 역사적 정치외교사적 차원, 국제법적 자연법적 차원, 인간학적 윤리적 차원, 더 나아가 영성적 신앙적 차원의 연구가 통섭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중근의 사상과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의 인간학적 윤리적 차원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신앙적 배경을 참조하면서 숙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윤리학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학적 배경 하에 인간의 행동이 지니는 가치와 당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좋은 삶’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안중근의 거사에 대한 그동안 평가는 주로 역사학 혹은 법학이나 국제법학, 또는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체 삶을 관통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바로 그의 삶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간학적이고 윤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가톨릭의 인간존엄성 원리와 함께 갈등상황에서도 평화를 건설하는 데 이정표가 되는 네 가지의 원리¹⁾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2장). 이 원리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보편원리이다. 이 원리들의 입장에서 안중근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과제이다(3장). 안중근의 삶과 거사의 동기를 1891년 〈노동헌장〉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가톨릭사회론과 거의 100년 후에 쓰인 〈복음의 기쁨〉을 통해 조명하는 것은 그의 삶의 진정성과 긴 역사적 안목 및 신앙적 진리성이 시대를 앞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그의 거사에 대한 인간학

1)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천주교주교회의중앙협의회, 2014), 217-237항. 교황은 그의 고향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연합 국가를 세울 당시 독립운동의 영웅이자 나중에 지방정부 수장이 되었던 Juan Manuel de Rosas(1793-1877) 장군과 Facundo Quiroga(1788-1835) 장군 양자의 편지들을 분석하여 이 원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교황이 예수회 관구장으로 일할 때(1974년)에도 회원들에게 이 원칙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소피아 대학의 Juan Haidar 교수가 소중한 4가지 원칙의 연원을 알려주었다.

적 윤리학적 평가가 뒤따른다(4장).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기실현이라는 갈망과 사회발전이라는 공동선이 통합될 수 있는지 살핀다면 이를 통해 교육학적 사례 뿐 아니라 비전을 얻게 될 것이다.

II. 가톨릭의 평화론: 인간존엄성 원리와 평화의 네 원리

1. 인간존엄성의 원리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은 인간이 ‘신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생명에 대해서든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은 구체적인 개별적 삶 안에서 신과 전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신의 부르심(의지)에 따라 자신의 실천이성(양심)과 의지를 통합하여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존엄한 까닭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권 중 가장 기본적 자유로 인정한다. 가톨릭 교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최상의 선 가운데 하나이며, 개인과 사회의 선을 진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친다.²⁾ 인간존엄성의 원리는 또한 사회원리로서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들이 있다. 이 원리들은 이성과 신앙이 밝혀주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복음 메시지와 정의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복음의 요청이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마주치면서 발생한다. 공동선의 원리란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자기완성이라는 실존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홀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통해서 이룬다는 원리이다. 모두에게 선이 되는 공동선이란 인권과 기본권의 보장체계로서 법과 질서, 평화와 자유 등의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서로 연대할 필요를 강조하는 연대성의 원리와 동시에 개인이나 하위 공동체에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조성의 원리가 나온다.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강조한다. 개인들과 민족들 사이의 상호 의존의 유대 증진에 있어서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과 부패로 인한 불평등은 방해물이다.⁴⁾

2) 위의 책, 553항.

3) 교황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천주교주교회의중앙협의회(1961), 453쪽.

4) 〈복음의 기쁨〉, 위의 책, 192항.

인간존엄성과 공동선, 그리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로 사회공동체가 운행된다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각 개인들의 관심과 입장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다툼은 인간 사회 안에서 불가피하다. 이런 갈등과 충돌 속에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어떤 태도와 내적 지향을 가지고 평화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네 가지 원리들은 사회 안에서 빈번히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기본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기본 요소가 그 중에서도 더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시간과 공간’, ‘일치와 갈등’, ‘실재와 이념’, ‘전체와 부분’ 사이에 항상 갈등이 발생하지만 교황은 전자, 즉 시간, 일치, 실재 그리고 전체가 후자(공간, 갈등, 이념, 부분)보다 더 우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설명한다.

2.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Time is greater than space)

인간 세계 안에는 만족과 한계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만족은 완전한 소유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지만 한계는 우리의 현실에 놓인 장애이다. 이상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역사는 발전한다. ‘시간’은 우리 앞에서 지평을 여는 표현으로서 유토피아적 미래와 한계를 지닌 현재를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희망을 선사한다. 반면 공간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현재 안에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소유하려하고 가두고 억누른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리는 현재의 공간을 소유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도록 한다. “시간은 공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비추고, 공간을 끊임없는 확장의 고리 속에서 되돌아갈 가능성 없이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⁶⁾ 교황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지상 생활동안 당신 제자들이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인정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신 것(요한 16,12-13)을 통해,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마태오 13, 24-30)를 통해 이 원리가 복음에서 연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⁷⁾

3. 일치는 대립을 이긴다(Unity prevails over conflict)

어떤 일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대립은 불가피하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대립의 포

5) 같은 곳, 222항.

6) 같은 곳, 223항.

7) 같은 곳, 225항.

로가 되어 당파적 입장에서 싸우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부류의 사람들과 대립을 회피하려고 그 일에 제 손을 씻고 제 갈 길만 가는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한다. 대신에 제3의 길을 걷도록 초대한다. 기꺼이 먼저 대립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정의 고리에 그 대립을 연결시키는 일에 우리를 초대한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오 5,9).⁸⁾ 불일치 가운데서도 친교를 구축하고 대립의 걸모습을 넘어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보려는 노력, 즉 사회에서 우정을 구축하는데 불가결한 원리로 ‘일치가 대립을 이긴다’는 점을 제시한다. 연대적 일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갈등과 긴장 그리고 충돌은 오히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생명을 불어넣는 일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혼합주의나 통합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 쪽에 타당하고 유용한 것을 보존하는 해결책이다.⁹⁾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하느님과 인간, 시간과 영원, 육과 영, 개인과 사회, 이 모든 것을 당신 안에 하나로 만드셨다는 점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원리가 복음의 핵심임을 밝힌다.¹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에페소 2,14)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분 안에서 모든 것의 일치와 화해를 보기 때문이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평화의 인사, 즉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함으로써”(콜로새 1,20) 세상과 세상의 대립을 이기셨고 화해시켰다는 것에 있다.¹¹⁾

4. 실재는 이념보다 중요하다(Realities are more important than ideas)

인간 정신의 이념과 실재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기 마련이다. 이념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것이라면 실재는 단순하게 존재한다. 이념이 실재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¹²⁾ 단지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수사학의 영역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재는 이념보다 중요하다’는 원리가 나온다. 이 원리에 따르면 실재를 포장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거부해야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수를 가장한 천사적 형식들, 상대주의의 독재들, 공허한 수사들, 실재보다는 이념적인 목표들, 비역사적인 근본주의 상품들, 친절이 없는 윤리체계들, 지혜 없는 지적담론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천명한다. 본래 이념들, 즉 관념적 노력으로서 얻어진 것들은 소통, 이해 그리고 실천에 기여하지만 실재와 분리된 이념들은 관념

8) 같은 곳, 226 -227항.

9) 같은 곳, 228항.

10) 같은 곳, 229항.

11) 같은 곳.

12) 같은 곳, 231항.

주의와 유명주의라는 비효율적인 형식을 낳고 기껏해야 사태를 분류하고 규정하는데 쓰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행동으로 불러내는 것은 이성에 의해 조명된 실재들이다.¹³⁾ 이 원리는 말씀의 육화와 말씀의 실천과 관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이다”(1요한 4,2)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5.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하다(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part)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도 내재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지역도, 자신의 편협과 진부함을 벗어나 더 큰 비전을 얻는 세계도 포기할 수 없다. 양극단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때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모두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교황께서는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더 큰 선을 보아야 하며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비옥한 땅과 장소가 지닌 역사에 뿌리를 내리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자극은 세계적인 전망에서 오기 때문이다.¹⁵⁾ 교황 프란치스코는 부분과 전체의 결합의 모델은 모든 점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각 점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구체’라기보다, 모든 부분을 수렴하며, 각 부분들은 독창성을 유지하는 ‘다면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면체는 보편적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모델이다.¹⁶⁾ 복음은 가장 작은 이 가운데 누구라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무리 속으로 데려오시는 착한 목자의 기쁨이기에 전체성과 통합성의 원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III. 안중근의 동양평화사상

앞에서 살핀 인간존엄성원리와 평화건설의 네 원리를 척도로 삼아 100년 전의 안중근의 삶과 사상을 조명해보자. 그의 생애와 사상은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 뤼순 감옥에서 취조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며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한

13) 같은 곳, 232항.

14) 위의 곳, 234항.

15) 같은 곳, 235항.

16) 같은 곳, 236항.

자서전과 미완성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재판 기록 등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다. 안중근에 관한 자료들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40년 전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1979년에서야 재일동포 김정명 교수가 일본국 회도서관 헌정연구실에서 「七條清美」 문서 중에서 〈안응철의 역사〉, 〈동양평화론〉이 발견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¹⁷⁾, 2018년에도 당시 아카시 일본헌병대사령관의 비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안중근이 밝힌 자신의 사상적 스승은 이상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¹⁸⁾

1. 안중근의 인간존엄성론: 양심과 천명

자서전에서 그는 천주교의 입교와 신앙의 증인으로 살았던 시절을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천주교 신앙으로 인해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음을 암시한다.¹⁹⁾ 아버지가 먼저 천주교에 입교하며 선교사를 도와 전교활동을 하던 차에 그도 입교하였다. 프랑스 선교사 홍(빌렘)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경문 강습과 교리 토론을 통해 신덕이 굳어지고 독실해져 자신도 홍석구(J. Wilhelm)신부와 함께 여러 고을을 돌며 전도하고 연설하였다. 예수 이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그도 전도여행에서 하느님의 구원역사를 선포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설교는 “안중근의 교리서”라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자서전의 10분의 1가량을 할애하며 자세히 기술하였다.²⁰⁾ 이 교리는 인간영혼의 신령함, 삼위일체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 영원한 심판, 성자 그리스도, 참회와 구원 등을 다루고 있다. 안중근의 교리 내용은 당시 천주교에서 사용했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서 비롯한 영혼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등과 토착신앙이 가미된 정하상의 〈상제상서〉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사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선행과 책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논변 등은 모두 인간 혼(영혼)의 신령함에 근거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7) 1979년 9월 김정명 교수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연구실 ‘七條清美關係文書’ 안에서 「안응철역사」와 「동양평화론」의 등사본을 합책한 『安重根傳記及論說』을 발굴했다. 김경일,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정신문화연구』, 32(4), 2009, 195쪽 참조; 동양평화론 등 안중근 관련 사료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市川正明, 『安重根と 朝鮮獨立運動の源流』(東京: 原書房, 2005), 13-17쪽 참조.

18) 동아일보, 2018년 4월 20일 기사 참조.

19)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20175, 범우, 23-31.

20) 그의 전교여행기는 생의 최후기에 작성되었으므로 15년 전의 일인데 생생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도 이 신앙으로 살았고 타인에게도 권유한 자신의 인생관이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황종열은 이 선포내용을 “안중근편 교리서”라 이름을 붙였고 연구하여 출판하였다. 황종열, 『안중근 토마스의 하느님 세계 인간 이해』 두물머리미디어, 2010, 참조.

생혼이니 그것은 초목의 혼으로서 생장할 수 있는 혼이요, 둘째는 각혼이니 그것은 금수의 혼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혼이요, 셋째는 영혼이니 그것은 사람의 혼으로서, 생장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고, 도리를 토론하고, 만물을 맡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하는 것이다.”²¹⁾고 그는 설파한다. 천명을 알아듣고 이를 실천하려는 본성도 천주께서 사람의 태중에서부터 창조한, 그리고 창조된 이후 영원무궁토록 죽지도 멸하지도 않는 영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²⁾ 또한 안중근은 인간 영혼과 우주를 창조한 천주에 대해 설명하고 삼위일체의 구조 속에서 행한 천주의 구원 행위와 영원한 심판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신령한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존엄하게 창조한 분께 감사드리며 그 분의 은혜와 위엄을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고 몸을 바쳐 신봉하며 모든 일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 이 교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주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동포들에게 신앙을 권유한다. “우리 대한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크게 깨닫고 용기를 내어 지난날의 허물을 깊이 참회함으로써 천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현세를 도덕시대로 만들어 다 같이 태평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 천당에 올라가 상을 받아 무궁한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천만번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현세를 도덕시대로 만들어 다 같이 태평을 누리다가”라는 표현에서 그의 현세 생활에서의 천명실천의 의지와 평화사상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명’은 『중용』 첫머리,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품이라 한다(天命之謂性)”고 언급한 성품(천성)으로서의 ‘천명’ 개념을 더 발전시켜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양심과 정의감이 일어나는 움직임(도심道心)을 뜻하였다. 천주교의 천주는 총에 관한 당시 교리는 인간 본성에 주어진 상존은총常存恩寵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조력은총助力恩寵의 구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 이벽과 정약용과 같은 보유론적 입장에서 유교를 해석하는 천주교 지식인들은 중용의 천명을 천성天性뿐 아니라 시시각각의 경고敍告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이 경고를 잘 알아듣기 위해 천주에 대한 공경과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²³⁾ 안중근이 자서전에서 말하는 ‘천명’ 역시 성리학적 개념의 ‘천성’으로 국한하지 않고, 역사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양심을 통해 의지를 자극하여 명령하고 이끄는 천

21) 안중근, 위의 책, 24쪽.

22) 같은 곳.

23) “‘도심’과 ‘천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없다. 하늘이 나에게 경고함은 우레나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간절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틀림없이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희미함이 없을 것이니... 순응하면 선이 되고 상서로움이 될 것이요, 태만하여 여기면 악이 되고 재앙이 될 것이다. 군자가 경계하고 삼가 두려워함은 오로지 여기에 있다.” 정약용, 『與猶當全書』 [2], 卷3, 5 참조. 번역은 금장태, 『실학과 서학』, 지식과 교양, 2012, 195쪽.

주의 목소리(경고)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서 안중근의 신앙의 기초를 이룬 인간 영혼의 실재성과 영원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치를 논변하기보다 안중근이 말하고 실천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그리고 천명이 천주교 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혼의 신령스러움과 천주와의 인격적 소통 가능성에서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

안중근이 ‘천명’을 직접 언급한 용례를 살펴보면, ‘하늘이 준비해주신 운명’,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원불멸한 영혼’, ‘하느님의 섭리’, ‘인간이 순응해야 할 하늘의 뜻’ 등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절 봄날 학생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다가 낭떠러지의 꽃을 꺾으려다 발을 헛디디 굴러 떨어져 죽을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한 그루의 나무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는데,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며, 천명을 감사하면서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억한다. 이때의 천명은 ‘하늘의 도움’ 또는 ‘하늘이 준비해주신 운명’이라 해석할 수 있다. 천주교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영혼의 귀중함을 설명하면서, “천명의 본성이란 것은... 천주께서 사람의 태중에서부터 넣어 주는 것으로서 영원무궁하고 죽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요.”라고 했다. 여기서의 천명은 「중용」의 천성天性으로서의 천명을 의미하면서도 오히려 그가 믿는 천주교의 영원불멸한 영혼의 개념이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안중근은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이범윤, 김두성 등과 의병들을 모아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참모총장 직을 맡아 두만강 건너 경흥과 회령에 주둔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하여 1개월 반 만에 구사일생으로 엔치야(烟秋)로 귀환하고 나서 “천번만번 생각해 보아도, 만일 천명이 아니었더라면 전혀 살아 돌아올 길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여기서의 천명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천주의 섭리 또는 은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중근은 천명이라 이르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의미로 ‘하늘의 뜻’을 자주 언급했다. 앞에서 언급한 블라디보스크에서 이범윤을 의병대 거사에 가담해줄 것을 설득하면서 “각하는 러일전쟁 때, 러시아를 도와 일본을 쳤으니, 그것은 하늘의 뜻을 어긴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제 만일, 각하께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순천順天과 역천逆天의 개념에서도 ‘천명’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를 이끄는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하늘의 뜻’을 알아듣고, 천명에 순응했다고 결정할 수 있는가? 이범윤에게는 조선의 북간도 관리사로 파견되어 일하다가 러일전쟁 당시에 청국 병사들과 함께 러시아를 도운 것이 그 당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행위였을 수 있다. 즉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으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공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 된다. 안중근은 이또 히로부미의 제거 이유를 설명할 때, 러일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서양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조선과 중국을 지켜주는 인종전쟁의 보호자 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하늘의 뜻

에 순응한 것이기에 크게 승리했다고 안중근은 생각한다. ‘하늘의 뜻’이 역사 안에서 어떤 시대적, 당파적 입장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드러나기에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 작용 안에서는 이성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지가 수용하여 행동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이기에 하늘은 물론 인간들에게 떳떳하다.

이런 양심적 행위는 설령 결과적으로 행위가 오류로 드러나더라도 이성이 명령한 의지의 순응은 윤리적으로 옳다.²⁴⁾ 이런 의미에서 안중근은 젊은 시절 정의롭지 못한 사회상황에서 의협심을 발휘하여 약자들을 구할 때나, 이토의 공언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동양평화의 공의를 위해 그를 처단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순간 “곧 하늘을 향하여 큰소리로 대한만세를 세 번 부른 다음”²⁵⁾, 군경에 붙잡혔다. 붙잡혀 가 심문을 받을 때, 귀순 감옥에서의 수형생활, 그리고 사형 현장에까지 보여준 그의 일관된 의연한 태도는 그의 행위가 오랫동안 숙고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한 일이었음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일본 검찰에게 신문을 받을 당시 살인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면서도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고 답변했다.²⁶⁾ 또 한 자신은 이토를 사사로운 혐오로 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그가 대한민국과 동양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대한민국 의병 참모총장의 의무로 임무를 띠고 하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뒤 포로가 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²⁷⁾ 그가 자서전에서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은 15가지나 되었고 5차 공판에서 최후의 진술을 할 때에도 1)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압과 기만으로 체결케 하였고, 2) 이 조약은 러일전쟁 당시 공표한 한국의 독립약속을 어겼고, 3)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후 황제를 협박하여 7조약을 체결하고 내정간섭을 자유로이 행했으며, 4) 이에 항의하는 의병 봉기에 대응하여 10만 이상을 죽였고, 5) 이토의 시정방침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립은 요원하여 전쟁은 끊임없이 될 것이기에 6) 한국 국민은 물론, 이토를 증오하고 제거하려는 적개심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7) 일본의 군인과 농부, 도덕가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이러한 거사동기와 그 근거에 관한 진술을 볼 때 그가 당시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한국의 국민이자 의병대의 참모총장으로, 천주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양심(실천

24) ‘양심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고 인격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율판단에 있어 양심이 최종심급으로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 - II, 질문 19 참조.

25) 안중근, 위의 책, 102쪽.

26) 안중근 제10회 신문조서(1909년 12월 22일), 『안중근 신문기록』(신용운 역), 채륜 2010, 190-191쪽.

27) 안중근, 위의 책, 113쪽 이하.

이성)의 많은 숙고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그가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찾기 위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2. 시간 중시의 역사의식

안중근이 적어도 우리민족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한, 자신이 살았던 32년의 삶보다 훨씬 더 긴 역사 속에서 그의 영혼은 살 것이다. 그가 공간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공간 안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축적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역사의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이 역사를 바꾸어 갈 것이라 믿었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는 성장과정에서 아버지 안태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안태훈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서 과거에 합격하였고 조선의 국비유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영효 등 개화파가 몰락하자 유학 준비자들도 생명에 위협을 받고 피신하였다. 그는 난세에 부귀공명을 포기하고 안빈낙도의 삶을 위해 7,8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 산중으로 이사했고 안중근은 그곳에서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한문서당식 교육을 받았다. 몰락해가는 조선의 현실정치에서 이탈하여, 한편으로 교육에 힘쓰고 다른 한편 나라를 개혁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안중근은 무관이었던 조부의 영향을 받아 학문보다는 사격과 사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친구들이 그에게 학문에 더 힘쓰라 권하자 “자네들 말도 옳다. 그러나 내 말도 좀 들어보게. 옛날 초패왕 항우가 말하기를 ‘글은 이름이나 적을 줄 알면 그만이다’고 했다. 그랬는데도 만고영웅 초패왕의 명예가 천추에 남아 전한다.”고 말했다.²⁸⁾ 그는 나라와 민족에 무언가 남길 긴 역사의식을 품고 있었다.

그가 천주교에 입교하고 영혼, 영원한 천주성, 영원무궁한 상벌이 따르는 최후심판 등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숙고하면서 시간 중시 이념은 더 확고해 졌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천주님의 상벌도 없고 또 영혼도 몸이 죽을 때 역시 같이 따라 없어진다면, 잠깐 사는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영화를 혹시 피함직 하지만은, 영혼이란 죽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천주님의 지극히 높은 권한도 불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오.”²⁹⁾

그가 27세가 되던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관할지로 만들려는 이토의 정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산퐁과 상해 등 동포들을 만나 독립의 대사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만난 동포들 중

28) 안중근, 위의 책, 12쪽.

29) 같은 책, 27쪽.

많은 이가 한결같이 냉소적이었다. 당시 몰락해가는 대한제국 관리들의 가림주구에 시달려 고국을 등지고 온 이들이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고 절망하던 차에 우연히 상해의 천주교당을 찾아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우연히 한국에서 잘 알고 지냈던 프랑스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괵(Le Gac) 신부를 만나 국제정세와 조국의 일을 논했다. 그가 들려준 권유는 이미 일본의 지배하여 들어갔다 보아야 하며, 한국을 위해 군사를 보낼 나라도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 기회를 엿보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³⁰⁾ 괵신부는 안중근에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교육사업, 사회건설, 민심의 단합, 실력향상 등을 조언해 주었다. 이 만남의 계기로 안중근은 확신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1906년 진남포로 이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웠다. 재주가 뛰어난 청년들을 교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려는 긴 호흡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07년 봄, 작고하신 아버지의 친구, 김진사라는 분이 찾아와 “나라 정세가 위태롭게 된 때에,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백두산 너머 서부 간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인이 백만여 명이 살고 있으니 그 곳으로 망명하여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했다.³¹⁾ 그는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모금을 주도하였고, 이를 비꼬는 일인들과 충돌한 일도 빈번하였다. 또한 그 해 이토 히로부미는 강제로 7조약을 맺고 황제를 폐위한 다음 병사를 해산시켰는데 전 국민이 분개하여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일군日軍과 충돌하였다.

이런 와중에 그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북간도로 향했다. 안정적인 평화로운 교육사업을 접고 생명을 걸고 현재의 불의에 맞서 싸워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제사회에 그 의지를 알려야하는 의병활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는 북간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참모총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우리들이 한번 의거로써 성공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첫 번에 이루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열 번에 이르고, 백 번 꺾어도 굴함이 없이,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좋다. 만일 우리 대에 목적을 못 이루면, 아들 대, 손자 대에 가더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야 그만 둘 것이다.”고 그는 선언하였다.³²⁾ 당시 유행하고 있는 민족국가주의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는 자신의 생애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을 내 딛는 태도로 산 것이다.

시간 중시의 역사의식은 자신의 신념을 한 순간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생각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자신

30) 같은 책, 58-61쪽. 이런 외교적 판단은 파리 외방전교회 사제들 뿐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 같다.

31) 같은 책, 63쪽 이하.

32) 안중근, 위의 책, 74쪽.

의 시간 안에서 진정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역사를 감동시키는 비전이라 말할 수 없다. 역사를 이끄는 비전은 자신의 상황을 이데올로기나 당파적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실재(reality)를 관찰하고 실천하려는 데서 만들어진다.

3. 실재 중시의 삶

천명에 순응하여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은 끊임없이 실천과 성찰이 순환하며 재조정되지 않고서는 오류로 흐르기 쉽다. 천명을 따르는 것은 결정론적 관점에서조차 쉽지 않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역사와 세계의 변화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회진화적 관점에서는 더욱 어렵다. 주관적 본성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 사회적 소통의 산물로 보고 객관성을 얻기 위해 모든 차원의 지식(scientia)과 실천이성을 결합하여(con) 숙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숙고작용을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는 특별히 양심(con-scientia)이라 부른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당파적 입장을 초월하여 공명정대하게, 즉 누구에게도, 어느 시대에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할 때야 ‘하늘의 뜻’에 순응한 것이 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재(reality=esse)를 추구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실재자체(esse ipsum)가 곧 하느님이어서 실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지평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도 그런 인식지평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실재를 부인하고 인간은 당파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진리를 포기하면 남는 것은 힘의 우열뿐이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진리를 위해 역사 안에서 다투는 것은 ‘절대 진리’를 이미 알기 때문이라기보다 각자는 부분적으로 이 진리에 참여하며 서로 대질하면서 절대 진리를 지향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누가 진리에 더 합당한가가 중요하다. 안중근과 뫼텔주교,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누가 더 양심의 숙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재 자체, 즉 진리를 향해 투신했는가? 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한 인간이 시간 축과 공간 축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 얼마나 많은 소통을 이루면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실천이성 안에서 통합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양심적 숙고를 당파적 입장이 아닌 절대적 지평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토는 속임수와 강박으로 대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철저히 일본의 당파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평신도 안중근과 주교 뫼텔을 비교하고자 한다.

안중근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 흥 신부를 도와 선교를 다닐 정도로 열심한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당시 천주교회의 대사회적 태도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신부와 함께 서울의 뮌헨 주교를 찾아가 천주교 대학을 설립하여 재주가 출중한 청년들을 뽑아 교육을 시키면 교리전파와 국가 장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국제정세를 읽고 있었고 서양의 선진학문을 인정하였기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서양의 교육수도회를 초청하자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뮌헨주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국인이 만일 학문이 있게 되면, 교 믿는 일에 좋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런 의논을 꺼내지 마시오.”³³⁾ 안중근은 두세 번 더 건의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심정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배우던 프랑스어마저 그만두게 된다. 당시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정치기류에 탑승한 채 예언직을 포기하고 교세확장에만 몰두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계몽된 민중들에게 몰린 불란서 성직자들의 정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뮌헨주교는 파리와방 선교사로서 파리와방전교회의 목적, 즉 현지 방인 성직자 양성, 신자들의 신앙증진, 비신자들의 복음화에 충실하면서 이제 막 선교의 자유를 얻은 조선 사회에서 포교에 치중하는 한편, 신자들의 정치참여 독려나 미래 교회를 위한 평신도 양성에는 무관심하였다.³⁴⁾ 오늘의 복음 선포의 과제로서 선교지의 가난한 이들의 슬픔과 번뇌, 기쁨과 희망에 동행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³⁵⁾ 누가 시대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권력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실재’를 중시하였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뮌헨주교가 친일인사는 아니었다하더라도 불란서 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1907년의 불일조약 이후 그의 친일화의 과정이 가속된 것이라는 평가는 옳아 보인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한국인과 정부에 대해서는 공세적이지만 일본에게는 수동적이었다. 1919년 독립만세사건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도 용산신학교를 방문하여 만세운동에 가담하겠다는 울부짖는 방인신학생들을 퇴학조치의 위협으로 막은 일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동영은 천주교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천주교 동포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공표하는 일도 있었다.³⁶⁾ 이에 반하여 평신도 안중근은 자신의 정치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교육사업과 독립의병운동들을 함께 실천하였다.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는 물론 인류평화에도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장기적 전망에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민족 내부의 독립 의지를 살려나가고 한일합방의 과정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33) 안중근, 위의 책, 32쪽.

34) 최기영, 「뮌헨주교의 한국인식과 한국천주교회」, 2011, 교회사연구 37호, 128쪽 이하.

35) 천주교회는 1965년에서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을 반포하고 가난한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교회의 그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6) 뮌헨주교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교분리 선교에 관해서는 최기영, 위의 논문, 125-155쪽 참조.

을 만방에 표명하기 위해서 의병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실재로의 지향은 학문과 지식의 영역뿐 아니라 미래를 창출하는 도덕적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뒤순 감옥의 교도관에게 써 주었다는 논어의 글,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생명을 내어준다)”은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실재를 중시하는 안중근 자신의 내적 태도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잘 대변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4. 전체인류를 염려하는 삶

안중근의 성장배경은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현 안태훈은 박영효가 뽑은 해외유학생이자 개화정책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들이 서양에서 전래된 천주교도가 되고 안중근이 한때나마 불란서어 공부를 하였던 것도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짐작케 한다. 천주교 교리는 모든 민족과 왕국을 초월한 하늘나라에 대한 지향 뿐 아니라 인류 평화에 대한 이념을 갖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귀순 감옥에서 시도한 미완성의 〈동양평화론〉 서문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³⁷⁾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³⁸⁾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지게 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는 인류평화를 궁극적 가치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각 민족과 국가단위의 독립과 자주권이 전제되는 평화론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이 지니고 있는 이념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사형선고를 받고나서 고등법원장 히라이시(平石)와 담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형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양평화전략을 개진하자 히라이시가 크게 감동하였다고 안중근은 전한다. “내가 그대에 대해서 비록 두터이 동정하지마는, 정부 주권의 기관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다만 그대의 진술하는 의견을 정부에 품달하겠다.”는 말과 함께 안중근이 평화전략을 저술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안중근은 공소실익도 없어 보이고 고등법원장의 말이 진담이라고 하면 〈동양평화론〉의 저술로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공소권 청구

37) 안중근, 위의 책, 123쪽.

38) 같은 곳.

를 포기했다고 적고 있다.³⁹⁾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에는 다 적지 못했지만 히라이시와의 담화에서 안중근은 귀순 지역에 ‘동양평화회의’ 기구를 조직하여 한중일 삼국은 물론 인도 태국 베트남 등 동양의 나라가 연합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동양의 상공업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자는 구상을 밝혔다.⁴⁰⁾ 이런 생각은 재판과정에서 이토 저격행위의 정당화의 근거로 인종주의적 침략에 한중일 동양3국이 인종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맞서야 하는데 일본은 약속과 달리 오히려 같은 인종인 중국과 한국을 제국주의적 침략대상으로 삼아 제국이 되고자 했다고 그가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⁴¹⁾

그는 세계평화와 동양평화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방해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방해요소는 이토와 같은 제국주의적 야심가들이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러일 전쟁 후 강화조약(1905 포츠머스)을 체결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서로 용인하는 밀약이었다. 자신들이 중국 만주를 남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한국은 일본의 배타적 지도권(사실상 식민지화 공인)하에 둔다는 밀약을 하는데⁴²⁾ 안중근은 이 시점부터 일본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정책을 노골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았다.⁴³⁾ 최근의 연구들은 안중근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1905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당시부터 한국을 병합시킬 의도를 가지고 점차로 외교권 박탈, 보호권 강화, 합병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⁴⁴⁾ 동양 3국의 인종적 협력을 기대했던 동양평화의 꿈이 일본의 배반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안중근에게는 당연하였다. 앞서 언급한 히라이시와의 면담에서 한중일 삼국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이나 패권다툼 같은 것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삼국의 수장이 로마 교황께 그 뜻을 전하고 맹세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39) 같은 책, 116쪽 이하.

40) 국가보훈처, “청취서: 안중근 의사 日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면담 내용”(이후 “청취서”), 『21세기와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1996, 56-57쪽.

41) 안중근이 인종주의적 침략에 맞서 동양 삼국이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가 인종주의적 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막아내고 삼국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면 당시 서구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제기구창설을 구상하는 국제회의에서 지지를 얻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1907년, 1909년 이상설 등이 헤이그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과 통감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던 사건은 안중근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현광호, 「안중근의 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제46권 3호(2003년), 183쪽 이하 참조.

42) <https://ko.wikipedia.org>, 포츠머스 조약 참조.

43) 이토가 1904년 3월 고종황제께 일황제 친서를 전달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설명하고 러일전쟁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국권보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1905년, 러일 강화조약체결 이후 대한제국과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 외교권을 침탈하고 자신이 1906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1909년 9월까지 일황제의 절대적 신임 하에 군대지휘권까지 획득하여 합병해나가는 일에 앞장섰다. 현광호, 위의 논문, 159-162쪽 참조.

44) 현광호, 위의 논문, 160쪽 이하.

교를 통해 세계의 신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던 일이다.⁴⁵⁾ 안중근 평화론의 비전이 최종적으로는 전 인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중 하나이다. 1908년 안중근이 독립군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시절 함경북도의 일본군 주둔지까지 진입하여 총격전을 벌이고 포로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그는 포로들이 불의한 전쟁이라 말하자 돌아가 이런 전쟁을 일삼는 난신적자들을 쓸어버리고 함께 동양평화를 위해 일하자며 총포들을 돌려주면서 석방하였다. 총포 없이 돌려보내면 그들이 군율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방식이었다. 이를 두고 부하 장교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저들은 우리 의병을 참혹하게 살해하는데 살려 보낼 수 있느냐”고 안중근에게 항의하였다. 안중근은 만국공법을 들어 사로잡은 적병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면서 적들이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야만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달랜 적이 있었다.⁴⁶⁾ 안중근의 만국공법의 존중과 인간애, 그리고 평화 정신을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위에서 살핀 안중근의 인류전체를 지향하는 태도들을 고려할 때, 안중근을 민족주의자나 인종주의자로 한정하거나 혹은 천주교 신앙의 토착화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보다⁴⁷⁾ 전체(인류의 평화)와 부분(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실천한 평화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체를 지향하면서 부분적 실천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립과 동양 삼국의 협력관계가 필수로 여겼기에 동양평화의 미명하에 실제로는 무고한 생명과 나라를 침탈하는 세력(이토와 일본제국주의)에 맞섰던 것이다.

5. 일치와 화해 중시하는 삶

안중근은 자신의 시대가 암흑 같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정의하곤 하였다. “난신적자亂臣賊子”(거짓신하와 도둑들)들이 판을 치는 것은 국제질서 안에서도, 한일 관계 안에서도, 한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문을 하여 출세하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벌써 접고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탐관오리나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돈이나 전답을 빼앗긴 이들을 도와 정의를 회복하려 했다. 죄도 없이 한 겨울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친구를 두고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편지를 받고 고향으로 떠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 날에나 저같이 악한 정부를 두 주먹으로 두들겨 개혁한 뒤에, 난신적자들을 쓸어버리고 당당한 문명 독립국을 이루어, 명쾌하게도 민권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피눈물이 솟아올라 참으로 발걸음을 옮겨

45) “청취서”, 56쪽 이하; 한광호, 위의 논문, 177쪽.

46) 안중근, 위의 책, 75-78쪽.

47) 김수태, 「안중근과 천주교 관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5-45쪽 참조.

놓을 수가 없었다.”⁴⁸⁾ 안중근의 의협심과 정의에 목말라 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정의는 공동체가 상호간의 일치와 화해의 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는 단순히 정의를 관념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와 일치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한 때 본당신부인 홍 신부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그가 볼 때 “홍 신부는 언제나 교인들을 압제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교인들과 상의하여 서울의 뫼텔 주교에게 청원하고, 이 주교가 안 들어주면 로마 교황에게 가서라도 폐습을 막자고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홍 신부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성을 내며 자신을 무수히 치고 때렸다 한다. 그는 분하고 치욕스러웠지만 이를 참아냈고 나중에 홍 신부가 용서를 빌자 흔쾌히 화해했다. 안중근은 자신도 감사하다고 말해 전날의 우정을 회복했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⁴⁹⁾ 1907년 그가 의병활동을 위해 가족과 생이별하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그곳 한인사회의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때의 일이다. 청년회의 임시사찰臨時査察 직에 뽑혀 일하는데 어느 날 회의 중 한 회원에게 규칙을 지키라며 사담私談을 금지하자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다. 나중에 이로 인해 꺾병을 얻어 한 달여를 고생하게 되는 그였지만 안중근은 인내하며 “하나의 사회를 이루며 사는 이들이 서로 다투면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옳고 그름을 묻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자청하여 화해했다.⁵⁰⁾ 대한독립의 취지를 알리고 의병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애와 동포의 일치였다. 1908년 3월 21일 대동공보大東共報에 실린 “인심을 결합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기고문은 그가 블라디보스톡 청년회에 가입하고 그 지역을 돌며 연설한 내용이었다. 「인심결합론人心結合論」⁵¹⁾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사상은 안중근이 일치와 화해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존엄한 까닭은 삼강오륜을 알기 때문이다. 삼강오륜이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서로 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부모와 아내 자식이 화합하여 가족을 유지되고 국민이 단결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원리를 말한다. 대한국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불화의 원인은 교만이고 그 치료약은 겸손이니 남이 자기를 꾸짖는 것을 너그럽게 수용하고 자기 공을 남에게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원통하게 죽고 죄 없는 조상의 백골마저 깨지는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 깨어라, 연해주에 계신 동포들아! 본국의 이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우리 동포들아! 모두 ‘불화’ 두 자를 깨뜨리고 ‘결합’ 두 자를 굳게 지켜 자녀들을 교육하며, 청년자제들은 결심하고 속히 우리 국권을 회복한 뒤에

48) 안중근, 위의 책, 46쪽.

49) 위의 책, 53쪽.

50) 안중근, 위의 책, 66쪽 이하.

51) 안중근, 같은 책, 138-140쪽.

태극기를 높이 들고... 전 세계가 울리도록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자.”⁵²⁾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동포들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중근은 자주적 독립 국가들이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해 세계인들의 일치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IV. 평가

우리는 가톨릭교회가 평화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존엄성의 원리와 프란체스코 교황의 네 원리를 해석하는 틀로 삼아 안중근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중근은 대한국의 한 지식인으로서 당시대의 정치외교적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이 뒤늦게 따라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실재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어떤 활동에 투신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완성해야 할지를 숙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 죽을 때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간직하고 자율적인 최종심급인 양심 안에서 숙고를 거듭하면서 ‘하늘의 뜻’을 찾고 실천하려는 사람이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과 의병활동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런 의지의 선택은 그를 둘러싼 실재들의 요청이자 전인류의 갈망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 의병대의 참모총장으로 일본군과의 국지적 전쟁에 참여하였고,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침략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그의 암살 행위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충실한 행위로 보인다. 정의감과 민족혼이 그를 집어삼킬 만큼 강열하게 타올라 ‘하늘의 뜻’을 실행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심(실천이성)의 명령에 의지를 순응하여 실천한 순천자(順天者)였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인권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대에 민족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았지만 민족의 폐쇄성을 넘어 사후 35년이 지나 탄생한 국제연합 이념의 기초로 여겨질 세계평화의 비전을 지향하였고 독립된 민족국가의 평등성 위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는 거사를 치룬 후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일신의 생명을 구하려 연연하지 않고, 일본의 불의한 침략의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독립운동의 의병들에게 저항의지를 강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52) 같은 책, 139쪽.

둘째, 안중근의 이토의 암살행위는 전쟁 중에 발생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종은 이준, 이상설 등을 국제회의에 파견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려 했으며 의병들의 봉기를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이나 합병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당시에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강박을 이용한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³⁾ 1907년 을미조약 역시 강박에 의해 취해졌고 이후 한국군이 강제해산 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국내외의 의병들에 의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⁵⁴⁾에서 적의 원수를 저격한 것이기에 정당방어가 성립한다. 전쟁 중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한다면 이는 안중근이 주장한대로 국제공법(당시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없었지만)을 다루는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하고 일본법에 따른다하더라도 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

안중근의 행위를 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정치인이었고 무장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우리는 현대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테러리즘도 반대한다. 테러는 선전 포고된 전쟁의 시설이나 군 병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제국헌법의 기초자였고 초대 총리로서 수차례 내각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에 파견된 일왕의 특사였고, 강제로 보호국을 만든 다음에는 군을 통솔하며 한국을 비합법적으로 통치한 초대 통감이었다. 1909년 이후에는 중국과 한국을 두고 러시아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의하려 한 특사였기에 의병들에게는 적군의 원수(암살당할 당시 일본 추밀원 의장이었지만 일본군을 총괄했던 통감이었고, 군국주의체제였던 점을 감안하면)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는 정식군대는 강압에 의해 해산된 가운데 의병들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호소로 일어나 저항했던 전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폭력도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국제법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유엔 헌장(제2조 4항)을 위반하는 ‘침략’이라는 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인이나 현지 부역자들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 중 하나로 볼 수 있기에

53) 1906년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Francis Rey)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強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험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고종의 위임장 등이 있다. 더글라스스토리, 《고종황제의밀서》(글내음, 2004년) 참조; 1965년 한일기본협약을 할 당시에 고종의 무효선언서의 존재를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수교하는 조건으로 을사조약 및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체결한 모든 협약이 무효였음을 확인하였다. 한일기본협약 2조 참조.

54)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교전 의병 수는 약 138,000명에 교전 회수가 2,700회 이상에 이른다. 15,000명 이상의 의병의 전사와 수천 명의 전사에 비해 일본군은 120여명의 전사자와 250여 명의 전상자를 냈다. 무기와 전술에 있어 차이가 엄청났지만 의병들의 투혼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구용, 「한말 의병항쟁에 대한 고찰-의병진압의 단계적 수습대책-」, 『국사관논총』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199쪽 참조.

‘테러’라기보다는 방어권의 행사라고 봐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침략전쟁에 대해 침략을 받은 국가 지도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방어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⁵⁵⁾ 불의한 침략과 강압에 저항하는 권리가 자연법적으로 주어졌다하더라도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불의에 저항할 수 없고 악의 세력은 이 점을 노려 힘의 우위를 앞세워 침략을 일삼기에 저항을 의무로까지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가톨릭교회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⁵⁶⁾ 안중근의 암살사건은 그 이후 독립투사들이 적의 우두머리를 목표로 삼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희생도 대수롭지 않았던 것과는 구별된다. 안중근은 정확히 패권주의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와 그 일행을 목적으로 삼아 탄창에 장착된 7발 중 6발을 정확히 쏘았다.⁵⁷⁾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테러가 아니었고 제국주의 침략의 우두머리와 그 부하들에게 향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군과 전쟁하는 상황이었고, 지도자는 어떤 실권도 행사하기 어려운 강제상태에 있었기에 이러한 국민들의 자발적 정당방어적 저항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 암살사건으로 결과적으로 합병 추진이 앞당겨졌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이런 의병의 독립 투쟁과 더불어 임시정부 수립 등의 자발적인 국민의 저항 덕분에 43년 미·영·중 카이로 회담이나 45년의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가 다루어지고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히틀러가 나찌즘과 패권주의적 침략전쟁으로 유대인은 물론 많은 반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자 그를 무력으로 처단하려는 단체를 조직하여 암살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다. “만일 미친 사람이 인도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 나는 그 자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대학교수로 초대받아 갔다가 양심의 분명한 명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로 다시 돌아온 본회퍼의 생각이었다. 안중근은 타국의 침략적 행위에 저항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당방위를 한 점은 동일하다. 안중근은 재판정에서 증언했다.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55) 바티칸, 『가톨릭 교회 교리서』(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2265항.

56) 1)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해야 한다.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2)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무력 사용으로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3) 무기의 파괴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조건들은 ‘정당한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의 전통적 조건들이다. 바티칸, 위의 곳 참조.

57) 처음 3발은 이토의 상체에 정확히 맞추어 사망케 했고, 나머지 3발은 가와카미 총영사, 모리 비서관, 다나카 이사에게 한 발씩 총상을 입혔다. 안중근, 위의 책, 201쪽 이하.

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본회퍼와 안중근도 모두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시대의 우상이 된 권력자들에 대한 처단을 양심의 판단과 명령을 따라 행하고 처형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백성들의 구원, 즉 불의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언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2018년 9월 10일 도쿄 긴자거리에서 안중근 의사 추모회 자리에서 아사히신문 전 서울지국장, 오다카와코우(小田川興)은 안중근 의사는 “100년 전에 국제연합(유엔) 사상을 제시한 분”이라 하였고, 호세아 대학교, 마키노에이지(牧野英二)교수는 “안중근이 서술한 동양평화론을 독일철학자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며 한 일관계가 더 가깝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⁵⁸⁾ 일본정부는 안중근의 국내외적 긍정적 평가를 경계하면서 여전히 “일본은 안중근은 범죄자이며 한국정부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왔다”고 말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한국통치 시기의 정치범의 명예회복과 사면을 제기하였고 안중근에 대해 ‘범아시아 평화주의자’, ‘한국의 독립운동가’, ‘지사’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 안중근의 유언대로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통일되고 한·일 간의 협력으로 동양평화를 이루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양심 안에서 성찰하고 결심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과 그 밖의 선국선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안중근의 삶과 죽음은 양심의 자유와 실천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구도생활과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모델이 된다.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라는 한정된 맥락 안에서 한 인간의 삶의 지향과 가치가 자신의 자율적 실천이성(양심)에 기초하되 공간 너머에 있는 시간의 지평과 전실재(全實在)를 지향하고 일치와 전체를 향하는 태도 속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점을 안중근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더글라스 스토리, 『고종황제의밀서』, (권민주 역), 글내음, 2004년.
 바티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안중근 자료집, 『안중근 신문기록』, (신용운 역), 채륜 2010.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범우 2017.

58) <https://ja.m.wikipedia.org>. 安重根 참조.

59) 아베내각의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2013년 11월 19일 기자회견; <https://ja.m.wikipedia.org>, 安重根, 評價, 각주 122.

- 정약용, 『與猶當全書』, 한국고전번역원, 1934-38.
- 금장태, 『실학과 서학』, 지식과 교양, 2012.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1권 (정의채 역), 성바오로 1993.
- 황중열, 『안중근 토마스의 하느님 세계 인간 이해』 두물머리미디어, 2010.
- 市川正明, 『安重根と 朝鮮獨立運動の源流』, 東京: 原書房, 2005.
- 교황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61. 교황문헌.
(<http://www.cbck.or.kr/book>).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교황문헌.
(<http://www.cbck.or.kr/book>).
- 국가보훈처, “청취서: 안중근 의사 日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면담 내용”, 국가보훈처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 김경일,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정신문화연구』, 32(4), 2009.
- 김수태, 「안중근과 천주교 관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이구용, 「한말 의병항쟁에 대한 고찰-의병진압의 단계적 수습대책-」, 『국사관논총』 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최기영, 「뫼텔주교의 한국인식과 한국천주교회」, 『교회사연구』 37호, 2011.
- 현광호, 「안중근의 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제46권 3호(2003년),
- 동아일보, 2018년 4월 20일 기사 참조.
<https://ko.wikipedia.org>, 포츠머스 조약 참조.
<https://ja.m.wikipedia.org>, 安重根 참조.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14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2일

연구자 소개: 김용해

① 전공: 윤리학, 사회철학 / 소속과 직위: 서강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인간존엄성, 인권, 평화, 종교

③ 주요논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근거』, 『젊은이의 행복학』,
『인간존엄성의 철학』, 『일반윤리학』, 『알프레드 델프』

④ E-mail: yhseph@sogang.ac.kr

Abstract

Ahn Jung-geun's Great Acts and Catholic Theory of Peace

Kim, Yonghae

Sogang University

Ahn Jung-geun, a Catholic believer, shot Ito Hirobumi, the special envoy of the Japanese Emperor, in Harbin, and this acts caused a huge wave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Japan and Korea. A hundred years later, Ahn Jung Geun is living in history and inspiring everyone who talks about peace in the East.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and evaluate his life and actions based on the peace theory of the modern Catholic church. It is presupposed that an attempt to evaluate a person 100 years ago on a modern basis has to admit that he was a great man who was ahead of his time. In the Catholic theory of peace I will introduce the four traditional theories such as human dignity, common good, solidarity, and assistance, and the four internal attitudes of Francesco Pope, which can build peace even in conflict. And I will deal how these principles and attitudes are realized in the mind, life, and death of Ahn Jung Geun. This illuminating work reveals how his conscientious agony, peace and justice-oriented minds are combined in the Catholic faith, by referring to his autobiography and listening to hearings of judicial process. And then I evaluate his acts in an ethical way as a question of what a good life is. “見利思義 見危授命: If you see interests, think then justice, if you see dangers, give then your life”. This adage, which he wrote, summarizes the life of him who was devoted himself to education and activities as volunteer- soldier and finally protested against injustice and was killed in order to create a more peaceful and free world without seeking his own benefit in the situation where the people suffered in the aggression of imperialism.

Key words : Peace-theory of Asia, Catholic theory of Peace, Dignity of Human Being, Conscience, Reality.